

LSI-R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이민식* / 김혜선**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성별, 문화, 인종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위험성·욕구 평가도구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LSI-R을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라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된 한국의 수용자 표본에 적용하고 각 집단별 위험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LSI-R이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분류심사도구인지, 그리고 각 집단별로 LSI-R의 어떤 구성요인들이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인지를 확인하였다. 자료는 2008년 5월 현재 서울지방법정청 및 대전지방법고 정청 산하 3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기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남성표본과 여성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위험성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녀 폭력범 간의 비교에서는 남성의 위험성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 남성표본 내에서의 폭력범 대 비폭력범의 비교에서는 폭력범의 위험성 점수가 비폭력범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LSI-R을 우리사회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된다.

❖ 주제어 : LSI-R, 재범유발요인, 위험성·욕구평가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 경기대학교 강사

I. 서론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율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60%를 상회하고 있다(이법호 · 박성수, 2006). 이처럼 높은 재범율은 수형자의 입소경력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지난 10년간 1회 이상 입소한 수형자들의 경력을 보면, 재범에 의한 입소가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범죄백서, 2008).

또한,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간의 전체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1996년 292건, 1997년 312건, 1999년 488건, 2000년 572건, 2003년 611건, 2004년 639건, 2005년 885건 등으로, 특히 2000년 이후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박형민 · 류종하, 2006).

이러한 재범율과 교정사고의 증가는 범죄자들의 시설 내 사고를 방지하고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재범유발요인들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수용자들의 위험성과 욕구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측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수용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분류평가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교정시스템 전반의 효과성 및 능률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범죄자의 위험성과 욕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로 각 주가 범죄학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객관화된 분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용자들의 위험성 및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Austin과 Hardyman, 2004). 객관화된 분류시스템은 위험성 및 욕구평가도구를 토대로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객관적 분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류심사관의 주관적 혹은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분류심사의 형평성을 향상시켰으며, 나아가 수용자의 위험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과 구금 수준을 결정케 함으로써 교정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교정시설과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및 캐나다 등지에서 성별, 문화, 인종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위험성

-욕구 평가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이하 LSI-R)를 한국의 수용자들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별 및 범죄유형별(폭력범 대 비폭력범)로 그들의 위험성 점수 및 범죄유발요인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LSI-R에 따른 위험성 점수가 일반적으로 여성범죄자 보다 남성범죄자가, 비폭력범 보다 폭력범이 현저하게 높다고 하는 Andrews와 Bonta(2003)의 가정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발견된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근거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의 수용자들을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LSI-R에 따른 위험성 점수 및 범죄유발요인들이 어떻게 차별화 되는 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Andrews와 Bonta(2003)의 주장대로 LSI-R이 성별 및 문화적 맥락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인지를 조사하고,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범죄유발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의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용자 분류·평가 개요

1) 미국의 경우

교정제도 내에서의 분류는 “수용자의 시설 내 적정한 배치,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교정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용자에게 필요 적절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일한 위험성과 특성을 가진 집단들로 분류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이러한 정의에 타당한 분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개인의 특성과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해 낼 것인가가 핵심

1) Champion(1994)은 분류를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인성 및 정신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Andrews와 Bonta(2003)는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하여 동일한 수용자그룹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슈로 등장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분류심사는 위험성 및 욕구 평가(risk-need assessment)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도구의 발달은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수용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예측타당성을 가지는지 과학적·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예측 요인들을 평가도구 내에 도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문헌에서는 위험성 평가요인을 개념적으로 크게 정적요인(static factors)과 동적요인(dynamic factors)로 구별하는데, 정적요인은 성별, 나이, 범죄경력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거나, 혹은 한 방향으로만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며, 동적요인은 태도, 지향, 약물남용, 동료관계, 고용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인들이다(Andrews와 Bonta, 2003; Bonta, 1996; Hannah-Moffat, 2006; Texman과 Thanner, 2006).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문헌에서는 동적요인이라는 용어가 수용자의 욕구(need)요인으로 대체되며, 욕구요인은 다시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와 일반욕구 (non-criminogenic needs)로 나뉘어 평가되기에 이른다(Andrews와 Bonta, 2003; Hannah-Moffat과 Shaw, 2001). 범죄유발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요인들로서 재범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일반욕구, 즉 가난, 건강상태 등은 변화 가능하지만 반드시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 요인들을 의미한다(Andrews와 Bonta, 2003; Andrews 외, 1990; Hannah-Moffat, 2006).²⁾ 요컨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위험성요인, 범죄유발욕구, 일반욕구를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시대별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Bonta는 1996년 자신의 논문에서 위험성 평가도구의 발달과정을 크게 3세대로 나누었으나, 다시 Andrews, Bonta, & Wormith(2006)의 최근 논문은 기존에 Bonta가 구별한 3세대 외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경향을 4세대 도구라 명명함으로써, 위험성 및 욕구 평가도구의 발달단계를 4세대로 구분하였다.

- 제1세대 : 이는 20세기 이전까지의 위험성 평가 관행을 지칭하며, 표준화된 평가도구 없이 전적으로 전문가의 자의적 판단을 중심으로 수용자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던 주관적 평가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요인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야 할 수용자들의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 제2세대 : 20세기 초반부터 1979년까지의 위험성 평가도구를 의미한다. 제2세대의 초반에는 임상적 평가도구가 위험성 평가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에는 Salient Factor Sco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Statistical Index on Recidivism 등의 계량적 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정적예측변수(static predictor variables)만을 반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위험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상황적·시간적 변화에 관계없이 위험성 점수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Zinger, 2004). 요컨대, 동적변수(dynamic variables)를 간과하여, 실제 수용자에게 적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선정과 같은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재범률을 예측하는 도구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Andrews 외 2006; Bonta, 1996).
- 제3세대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용자 욕구요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성 평가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함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객관화된 분류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위험성, 범죄유발요인 및 일반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개발된 분류심사도구로는 Wisconsin Risk & Needs Assessment와 1982년 Andrews에 의해서 개발된 Level of Service Inventory(LSI)가 있다. LSI는 여러 번의 경험적 연구를 통한 수정작업을 거쳐 1995년에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LSI-R)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Psychopathy Checklist-Revised가 범죄자들의 인성과 위험성을 예측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으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LSI-R이 수용자들의 재범가능성과 욕구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보다 더 타당한 도구임이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왔으며(Andrews와 Bonta, 2003; Gendreau 외, 2002), 또한 실제로, 현재 미국의 900개 이상의 교정시설에서 LSI-R을 분류심사도구로 채택하고 있다(Lowenkamp 외, 2007).
- 제4세대 : 제4세대 분류심사도구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제3세대의 분류도구가 지나치게 객관화되어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전문가의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을 도입함으로써, 위험성과 욕구에 있어서 수용자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다(Austin과 McGinnis, 2004; Douglas와

Kropp, 2002). 제1세대의 전문가 판단은 비구조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으로 수용자의 위험성을 평가한 반면, 제4세대 평가 도구들은 표준화된 계량적 심사와 전문가의 구조화된 평가를 결합하여 수용자 개개인에 특유한 위험 및 욕구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위험성 예측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도구로는 Correction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ystem(CAIS),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COMPAS), Offender Intake Assessment of Correctional Service Canada(OIA),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LS/CMI) 등이 있다. 이 도구들은 소위 ‘위험 · 욕구 · 반응성 원칙’(risk-need-responsivity principle)을³⁾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은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가능성과 예측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2) 우리나라의 분류심사

우리나라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41호)에서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심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위험성 및 욕구평가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 **분류심사 및 분류급의 결정** : 분류심사는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수용자를 위한 신입심사와 6개월 혹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심사로 나누어진다. 신입심사에서는 정신병리학적 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외에도 성장과정, 교육정도,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여 교정교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직업, 근로의욕, 취미, 소질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작업종목과 직업훈련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범죄에 대한 동기와 회수를

3) ‘risk-need-responsivity principle’은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 말부터 분류제도가 지향해야할 이념으로 Lee Sechrest와 Ted Palmer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이념이 분류제도의 관행에 반영된 것은 199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Taxman와 Thanner, 2006). Hannah-Moffat(2006)은 이를 ‘risk principle,’ ‘needs principle,’ ‘responsivity principle’로 구분하여 각 원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Risk principle - 밝혀진 위험요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미래의 범행가능 확률, Need principle - 교정교화프로그램이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할 수용자의 필수 욕구요인을 밝혀내는 과정, Responsivity principle - 교정교화프로그램은 수용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학습태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문화, 정신건강상태, 신체장애상태, 피해상태 등이 있다.

구명하여 개선의 난이도와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개선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개선급, A, B, C 등급으로 나누며, A등급으로 갈수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로 판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분류심사도구는 수용자의 위험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가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긍정적인 태도에 점수를 줌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개선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은 수용자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 **분류심사에 활용되는 평가요인** : 실제 분류심사과정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별표 1의 ‘개선급 분류지표’ 외에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임상적 평가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Lee와 Eden, 2005). 분류심사처우규칙은 가족환경, 교육 및 고용관계, 거주환경, 인성적·심리학적 특성, 보호관계, 범죄기록, 상담기록, 출소 후 수용자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의지, 치료와 감독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류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의 분류심사도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인들과 대체로 일치하나, 그 점수의 비중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수용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성별의 차이에 기초한 위험성 및 욕구평가 요인들은 우리나라 분류도구에서도 부재한다. 그러나 ‘반응성원칙’에 의한 요인들이 분류심사의 요인이 아니라, 수용자 처우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미국의 분류심사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류심사도구들은 재범예측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측타당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Lee와 Eden(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수용자들의 교정시설 내 비행을 예측하는 인자로서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LSI-R과 같은 도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가도구들도 주요 선진국에서 포함하고 있는 요인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의 부재는 이러한 요인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2. LSI-R 선행연구

1) LSI-R의 이론적 배경

1970년대 후반부터 Andrews와 Bonta는 교정직 실무자들 및 범죄학자들과의 공동 노력으로 사회학이론, 정신병리학이론, 그리고 범죄학의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LSI를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는 LSI-R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이론은 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기위한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요인들의 선정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신병리학이론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구체화하며, 사회학습이론은 사회학적 · 정신병리학적 요인과 더불어 대인관계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LSI-R은 이론에 기초한 종합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LSI-R의 예측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결과가 LSI-R이 타당한 위험성 예측도구임을 지지해왔다.

2) 선행연구

제3세대 위험성평가도구 중에서 LSI-R은 미국 및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경험적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LSI-R은 남성 및 여성 수용자그룹은 물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Andrews와 Bonta, 2003; Gendreau 외, 1996, 2002).

메타분석연구 : Gendreau와 동료들(1996)은 197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표된 다양한 위험성도구를 평가한 131개의 재범을 예측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LSI-R이 재범율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Pearson's $r = 0.35$)를 보이는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그들은 범죄기록, 사회적 성취도, 연령, 성별, 동료관계, 약물남용 및 가족관계 등이 가장 유력한 재범예측요인임을 발견했다. 또한, Gendreau와 동료들은 2002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30개의 재범예측연구를 비교한 결과, LSI-R이 PCL-R 보다 재범예측에 더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Hemphill과 Hare(2004)는 PCL-R은

정신심리학적 분석이 목적인 도구이고, LSI-R은 위험성과 욕구분석을 통한 재범예측도 구이기 때문에 평가 목적이 명백히 다른 두 도구간의 예측타당도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였다.

-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 Kroner와 Mills(2001)는 5가지 위험성 평가도구(PCL, LSI-R, HCR-20, VRAG, LCS)의 예측타당도를 97명의 남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LSI-R이 재범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 = 0.34$)를 나타냈으며, 80%의 고위험군 범죄자들 중에 80%는 출소 후 24개월 내에 재범을 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Simourd와 Malcolm(1998)은 성범죄자 집단들을 연구하여 근친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그리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간의 위험성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LSI-R의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LSI-R이 범행의 특징에 따라 차별화된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내는 지를 평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Girard와 Wormith(2004)의 연구는 성범죄자, 가정폭력범, 정신장애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그룹과 보호관찰대상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LSI-OR(LSI-Ontario Revision)의 위험성 점수가 수용자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LSI-R을 수용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그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연구가 대부분 백인 남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Simourd의 연구(2006)와 Schlager와 Simourd의 연구(2007)는 인종에 따른 LSI-R 위험성 점수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로 꼽을 수 있다. Simourd의 연구에서는 인종과 관계없이 백인, 흑인, 라틴계 모두 LSI-R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Schlager와 Simourd의 연구에서도 흑인과 라틴계를 비교한 결과, 흑인 27.6, 라틴계 28.1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SI-R의 저자들(Andrws와 Bonta)이 주장한 바 - LSI-R이 인종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라는 것 - 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여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 Coulson과 그 동료들(1996)은 LSI를 여성수용자에게 적용한 결과, 평균 위험성 점수가 54점 만점에서 15.5로 나타났으나, 남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위험성 점수는 평균 20.9에서 25.1의 범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

성과 여성 수용자의 위험성 점수를 비교한 Lowenkamp와 동료들의 연구(2001)에서는 두 집단의 LSI-R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남녀 수용자 그룹과 그러한 경험이 없는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아동기의 피학대경험이 특히 여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Simourd(2006)의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LSI-R 위험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남성그룹이 여성그룹보다 평균 2점 높게 평가됨으로써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수용자의 대부분이 재산범죄자인 반면 남성수용자의 대부분은 폭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LSI-R에 의해 평가된 위험성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LSI-R이 여성수감자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는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의 LSI-R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남성중심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위험성 평가요인들이 여성범죄의 특이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Belknap과 Holsinger, 2006; Blanchette와 Taylor, 2005; Bloom 외, 2003; Resig 외, 2006). 즉, Daly의 주장대로 여성범죄의 전형적 특징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 시작해서 그러한 피해로부터의 탈출이 결국 매춘이나 마약과 같은 범죄와 경제궁핍에 의해서 유발되는 다른 재산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경로를 따르는 여성범죄자들의 경우는 LSI-R과 같은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할 경우, 그들의 특이한 피해자적 입장을 간과할 뿐 아니라, 그 위험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Resig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Daly가 말하는 전형적인 경로를 따르는 여성마약범 그룹과 피해를 폭력으로 대응한 여성범죄자 그룹의 경우, LSI-R 점수와 18개월 동안 재범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그룹의 상관계수가 각각 -0.21, -0.28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sig 외, 2006). 따라서 이는 여성범죄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및 욕구 평가요인이 따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 **폭력 · 비폭력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 Loza와 Simourd(1994)는 남성 폭력범집단과 남성 비폭력범집단의 LSI-R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폭력범집단이 27.44인 반면 비

폭력범집단은 23.86임을 확인함으로써 폭력범집단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 LSI-R은 위험성 예측에 타당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Hollin과 Palmer(2003)가 영국 남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폭력그룹(LSI-R 평균점수 28.91)이 비폭력그룹(LSI-R 평균점수 19.23) 보다 높은 위험성 점수를 나타낸다고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이들은 폭력그룹이 범죄기록, 교육 및 고용관계, 동료관계, 알콜 및 약물남용의 변수에서 높은 위험성 점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의 문헌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 내에서의 폭력/비폭력 집단 간 비교연구는 행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 : 이상에서 소개한 연구 외에도 가석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으며, 대개 LSI-R 점수가 재범예측에 유용한 도구임을 설명하고 있다(O'Keefe 외, 1998). 특히, 영국에서 수행된 Raynor와 동료들의 연구(2000)는 845명의 남성 보호관찰대상자와 176명의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영국 자체에서 개발된 분류심사도구인 Assessment Case management and Evaluation(ACE)과 LSI-R의 재범예측타당도를 18개월에 걸쳐 비교한 결과, 오히려 LSI-R이 ACE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재범을 예측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이법호와 박성수(2006)가 보호관찰자를 대상으로 LSI-R을 이용하여 재범가능성을 평가했으며, LSI-R이 국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적용가능한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3. 연구문제

일반적으로, LSI-R에 의한 위험성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재범율을 확인하여 LSI-R 총점수와 재범율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법, 둘째, 수용자의 입소 후 교정사고기록을 확인하여 LSI-R 점수와 교정사고기록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법, 그리고 셋째,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위험도가 각기 다르게 수용자 집단들을 구성한 후 LSI-R 점수가 각 집단의 위험성 점수를 차별화해 내는 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LSI-R을 한국의 수용자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의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을 성별 및 범죄유형별로 4개의 집단(남성폭력범, 남성비폭력범,

여성폭력범, 여성비폭력범)으로 나누어 위험성 점수 및 범죄유발요인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라 LSI-R에 의한 위험성 점수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성별 및 범죄유형에 따라 LSI-R에 의한 범죄유발요인들은 차별화되는가? (3) 결론적으로, LSI-R은 한국 수용자들의 위험성 및 욕구 평가도구로서도 타당성을 갖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방법교정청 및 대전지방법교정청 산하 3개 교정기관(Y교도소, S구치소, C여자교도소)에 수용된 기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각 기관별로 2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성별 및 범죄유형별 비율은 가급적 남2 : 여1, 폭력범⁴⁾ 1 : 비폭력범⁵⁾ 2가 되도록 설계하였으나⁶⁾, 실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실제 수집된 자료는 남성 61.4%, 여성 38.6%, 폭력범 32.6%, 비폭력범 67.4%로 여성이 계획보다 다소 많이 표집되었다. 자료수집은 2008년 5~6월에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 보안과의 협조로 작업시간이나 교육과정 집행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전체 600부의 의뢰부수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한 설문은 모두 503부이며, 각 그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4) 폭력범에 속한 범죄유형으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폭행, 강도, 강간 및 성폭행, 방화, 유괴 등이 포함되었다.

5) 비폭력범에는 사기, 도박, 절도, 경제범죄, 마약범죄, 컴퓨터범죄, 교통사범, 병역거부, 성매매 등이 포함되었다.

6) 「범죄분석」(2007)에 의하면, 2006년도에 발생한 범죄의 폭력범 대 비폭력범의 비율은 35:65로서 거의 1:2이다.

〈표 1〉 성별 · 범죄유형별 연구대상자 분포

구 분		성 별		
		남성(M)	여성(F)	계
범 죄 유 형	폭력(V)	남성폭력범(MV) 93 (18.5%)	여성폭력범(FV) 71 (14.1%)	164 (32.6%)
	비폭력(N)	남성비폭력범(MN) 216 (42.9%)	여성비폭력범(FN) 123 (24.5%)	339 (67.4%)
	계	309 (61.4%)	194 (38.6%)	503 (100.0%)

2. LSI-R의 적용절차

Andrews와 Bonta에 의해 작성된 LSI-R 매뉴얼(1995)에 따르면, 본 도구는 분류심사관이 수용자의 구금 수준 및 교도소의 적정 보안수준을 결정하는 분류과정에서 인터뷰 방식에 의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수용시설 내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수용자와 일대일의 인터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문의 내용, 형식 및 문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지 조사대상자가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자기응답식 선택형 설문형식으로 LSI-R의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영문판의 번역과정에서 한국의 실정과 거리가 먼 문항들은 삭제되거나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수표의 발행이 가능한 은행계좌(checking account)가 있는냐는 질문은 삭제되었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질문 중 social security라는 용어는 생활보호대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번역상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원문의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LSI-R은 10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질문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문항과 0에서 3의 범주형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즉, ‘0’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 ‘1’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 ‘2’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족스런 상황’, ‘3’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만족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점수를 합하면 위험성 점수가 산출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0점에서 최고 54점의 위험성 점수가 산출가능하다. LSI-R의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로 분류된다. 〈표 2〉는 LSI-R의 10개 하위변수와 해당문항

그리고 각 하위변수 당 위험성점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 2〉 LSI-R의 구성변수 및 위험성 점수

위험성 및 욕구변수 (위험성점수)	문항번호	항목	항목점수
1. 범죄기록(10)	1-3	이전범죄기록	3
	4	현재 범행	1
	5	16세이전의 전과기록	1
	6-10	구속 및 교정사고기록	5
2. 교육 및 직업(10)	11	현 고용상태	1
	12-14	직장생활에서의 문제점	3
	15-17	학교생활	3
	18-20	업무수행, 동료, 상사관계	3
3. 재정상태(2)	21-22	재정적인 문제 및 생활보장제도 의존정도	2
4. 가족/결혼관계(4)	23	현결혼상태에 대한 불만족	1
	24-25	가족 및 친척들의 지원여부	2
	26	가까운 친척중에 범죄자 유무	1
5. 주거환경(3)	27	거주환경 만족여부	1
	28	주거의 유동성(잦은 이사)	1
	29	우범지역여부	1
6. 여가 및 오락(2)	30-31	여가활동 참여 및 시간활용	2
7. 동료/친구관계(5)	32	사회적 고립정도	1
	33-36	친구 및 지인의 범죄과 관련정도	4
8. 음주 및 약물(9)	37-38	과거의 약물 및 음주 경력	2
	39-40	현재 약물 및 음주 문제	2
	41-45	상황적 문제점	5
9. 정서 및 인성(5)	46-47	과거의 정신과 치료경력	2
	48-49	정신적 문제점 진단	2
	50	심리적학인 평가지표	1
10. 태도 및 지행(4)	51-52	죄책감 및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2
	53-54	양형 및 교정제도에 대한 만족정도	2
LSI-R 총점			54

3. 자료의 코딩 및 분석

코딩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각 문항에 대한 수용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코딩하였고, 둘째는 각 문항이 LSI-R 문항별 점수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54개 문항에 대하여 위험성 점수를 산정하여 수용자별 전체 LSI-R 점수와 10개 위험성 및 욕구요인에 대한 부분점수가 모두 산출되어 코딩되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ANOVA, 두 평균간 차이검증(독립표본 t-Test)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V. 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전체평균 연령은 41세이며, 각 집단별 전체평균 연령도 39~42세로 서로 비슷하다. 네 집단별 연령의 세부적인 분포는 <표 3>과 같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수형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10대 0.8%, 20대 20.3%, 30대 29.7%, 40대 31.3%, 50대 13.9%, 그리고 60대가 4.0%이다(범죄백서, 2008).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34.4%로 가장 많고, 30대 24.4%, 20대 20.0%, 50대 15.4%, 그리고 60대가 5.8%로 현재 교정시설 내 수용인구의 연령비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성별·연령별·범죄유형별 분포

연령	남성		여성		계 (n=500)
	폭력범 (n=92)	비폭력범 (n=214)	폭력범 (n=71)	비폭력범 (n=123)	
20대	19 (20.7)	59 (27.5)	9 (12.7)	13 (10.6)	100 (20.0)
30대	21 (22.8)	38 (17.8)	22 (31.0)	41 (33.3)	122 (24.4)
40대	31 (33.7)	81 (37.9)	23 (32.4)	37 (30.1)	172 (34.4)
50대	16 (17.4)	23 (10.7)	14 (19.7)	24 (19.5)	77 (15.4)
60대 이상	5 (5.4)	13 (6.1)	3 (4.2)	8 (6.5)	29 (5.8)
평균연령	40.85	38.92	41.90	42.28	40.52
표준편차	10.890	12.232	10.655	10.988	11.536

* 연령에 대한 무응답 3명 / (): 해당연령대가 각 집단별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음으로, <표 4>는 연구대상자들의 세부적인 범죄유형별 분포를 보여준다. 각 그룹별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폭력범의 경우 살인 및 살인미수가 31.1%, 폭행이 29%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강간 및 성폭행이 22.6%, 강도가 13.9%로 남성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표적 폭력범죄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폭력범은 살인 및 살인미수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07년 말 청주여자교도소 및 전국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전체 여성수형자 1,435명 중 폭력범(살인, 강도, 폭력·상해)은 369명(25.7%)이고 비폭력범은 1,066명(74.3%)이며, 폭력범 중 67%가량(248명)이 살인범이다. 이러한 통계는 본 연구에서 여성폭력범 집단이 살인범에 의하여 다소 과대표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여성수형인구의 범죄구성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살인한 경우는 대부분 남편, 동거인 혹은 남자친구의 학대에 대한 보복 성격의 살인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는 Daly가 주장한, 여성의 피해가 여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소위 ‘성차별에 기인한 여성범죄’(gendered pathways to crime; Chesney-Lind, 2006)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범죄의 질적 차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범죄유형별 분포

폭력범			비폭력범		
범죄유형	남성(%)	여성(%)	범죄유형	남성(%)	여성(%)
살인 및 살인미수	29(31.1)	62(87.3)	사기	73(33.8)	72(58.5)
폭행	27(29.0)	5(7.0)	절도	36(16.7)	16(13.0)
강도	13(13.9)	1(1.4)	도박	10(4.6)	-
강간 및 성폭행	21(22.6)	-	경제사범	37(17.1)	20(16.3)
방화	3(3.2)	1(1.4)	컴퓨터범죄	7(3.2)	-
유괴	0	2(2.8)	교통사범	21(9.7)	1(0.8)
			병역거부	30(13.9)	-
			마약사범	-	12(9.8)
			기타	2(0.9)	2(1.6)
계	93	71		216	123

비폭력범죄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기 범죄가 가장 (특히, 여성의 경우 절대적으로) 많으며, 경제사범⁷⁾과 절도범죄도 상대적으로 많다. 남성 표본에서는 병역거부로 인하여 수용된 자들이 13.9%이고, 여성표본에서는 마약사범이 9.8%로서 특징적인데,

이는 성별에 따른 범죄의 질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2. 타당성 검증

1) 집단 간 차이 검증

〈표 5〉에서와 같이 LSI-R 총점과 각 하위요인에 대하여 집단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한 결과, 네 그룹의 전체 위험성점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974$), 위험성점수는 남성폭력집단 11.78, 남성비폭력집단 8.92, 여성폭력집단 10.11, 그리고 여성비폭력집단 9.56으로 나타났다. Andrews와 Bonta(2001)는 LSI-R 매뉴얼에서 그 점수를 해석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용자를 적절한 보안등급의 교정시설과 프로그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남 성	여 성
저위험군(minimum)	0 - 24	0 - 12
중위험군(medium)	25 - 36	13 - 23
중상위위험군(high medium)		24 - 36
고위험군(maximum)	37 이상	37 이상

매뉴얼에 따르면, 저위험군에 속한 수용자들은 1년 이내에 약 42% 정도의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중위험군은 약 48%, 중상위위험군은 약 57%, 그리고 고위험군은 약 76% 정도의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점수분포는 다음과 같다.

	LSI-R 점수분포
남성폭력범	0 - 31
남성비폭력범	2 - 24
여성폭력범	1 - 23
여성비폭력범	0 - 31

7) 경제사범에는 구체적으로 문서위조, 조세사범, 증권사범, 지적재산권범죄, 보건범죄(식품위생법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수용자 표본의 평균점수는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남성폭력범의 경우에도 평균 12점미만을 기록함으로써, 매뉴얼 상의 분류기준을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수준의 위험성 점수에도 불구하고, LSI-R은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게 구성된 우리나라 재소자 집단들의 위험성 점수를 차별화하는데도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각 집단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폭력범집단이 비폭력범집단 보다 위험성점수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험성 점수가 낮게 산출되는 것은 사회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한계점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도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에는 10개 하위범주에 대한 점수 비중을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에서는 범죄기록, 재정상태, 여가 및 오락,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 분야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LSI-R 평균점수 비교

항목(점수)	남성				여성				F
	폭력범 (n=93)		비폭력범 (n=216)		폭력범 (n=71)		비폭력범 (n=123)		
	M	SD	M	SD	M	SD	M	SD	
LSI-R점수(54)	11.78	5.727	8.92	5.032	10.11	4.827	9.56	4.951	6.974***
1.범죄기록(10)	2.58	2.002	1.79	1.693	1.30	1.525	1.91	1.824	7.683***
2.교육/직업(10)	1.44	1.500	1.21	1.578	1.75	1.721	1.54	1.549	2.527
3.재정상태(2)	0.77	0.628	0.65	0.584	0.39	0.573	0.66	0.625	5.553*
4.가족관계(4)	0.47	0.760	0.31	0.683	0.68	0.891	0.49	0.881	4.365
5.주거환경(3)	0.38	0.706	0.24	0.593	0.38	0.763	0.22	0.536	1.992
6.여가/오락(2)	1.24	0.743	1.07	0.741	1.10	0.796	0.85	0.678	5.333**
7.동료/친구(5)	1.25	1.049	0.96	1.029	1.21	1.027	0.97	1.048	2.461
8.음주/약물(9)	1.25	1.544	0.54	1.128	0.65	1.332	0.43	1.056	9.231***
9.정서/인성(5)	1.29	1.203	0.94	1.123	1.46	1.181	1.25	1.258	4.812*
10.태도/지향(4)	1.15	1.083	1.30	1.366	1.03	1.121	1.23	1.442	0.843

*p<.05, **p<.01, ***p<.001

2) 성별효과 검증

이하에서는 동일 범죄유형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위험성 점수차이와 동일 성별 내에서의 범죄유형에 따른 위험성 점수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별과 범죄유형이 각 집단의 위험성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효과를 남성폭력범 대 여성폭력범, 남성비폭력범 대 여성비폭력범의 비교를 통해 보기로 한다.

(1) 남성폭력범 대 여성폭력범

〈표 6〉에서 전체 LSI-R 점수를 보면, 여성폭력범의 87%가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폭력범의 위험성 점수보다 더 낮게 나왔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범주들 중에서는 범죄기록, 재정상태, 음주 및 약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 여성폭력범의 대다수가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기록 점수가 낮은 것은 그들의 상당수가 초범이며, 어떤 범죄지향적 동기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나 고부간의 갈등 등에 의한 보복 차원에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여성살인범의 대부분은 남편, 동거남이나 아이, 시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 폭력범죄, 특히 살인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Daly(1992)가 말한 ‘여성의 피해경험이나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gendered pathways to crime)’의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열악한 재정상태는 그들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 더 강력한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음주 및 약물요인과 관련해서는 약물남용은 범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음주는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폭력범 표본의 경우, 음주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47.3%가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범죄와 음주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이에 비해, 여성폭력범은 32%가 음주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⁸⁾

8) 비폭력범의 경우는 남녀 모두 음주와의 관련성이 17~18%에 불과했다.

〈표 6〉 남성폭력범과 여성폭력범의 LSI-R점수 비교

구 분	남성 폭력범(n=93)		여성 폭력범(n=71)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SI-R점수(54)	11.78	5.727	10.11	4.827	1.981*
1.범죄기록(10)	2.58	2.002	1.30	1.525	4.501***
2.교육/직업(10)	1.44	1.500	1.75	1.721	-1.213
3.재정상태(2)	0.77	0.628	0.39	0.573	3.986***
4.가족관계(4)	0.47	0.760	0.68	0.891	-1.572
5.주거환경(3)	0.38	0.706	0.38	0.763	-0.340
6.여가/오락(2)	1.24	0.743	1.10	0.796	1.143
7.동료/친구(5)	1.25	1.049	1.21	1.027	0.220
8.음주/약물(9)	1.25	1.544	0.65	1.332	2.612**
9.정서/인성(5)	1.29	1.203	1.46	1.181	-0.927
10.태도/지향(4)	1.15	1.083	1.03	1.121	0.706

*p<.05, **p<.01, ***p<.001

(2) 남성비폭력범 대 여성비폭력범

비폭력범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LSI-R 평균점수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 점수가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LSI-R은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경험적 연구결과 남성수용자의 위험성을 여성수용자의 위험성보다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구별하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Andrews와 Bonta, 2001; Simourd, 2006),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상반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남성비폭력범 표본에는 포함되지만 여성비폭력범 표본에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범죄성이 약한 병역거부사범, 교통사범, 도박사범, 컴퓨터범죄사범들이 남성비폭력범의 위험성 평균을 낮추었을 (또는 여성표본 중에서 58.5%로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범이 여성비폭력범의 평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병역거부자만을 남성 비폭력집단에서 제외한 뒤 위험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 9.36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성비폭력 집단의 점수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폭력범 표본의 죄명별 구성이 성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후속연구는 죄명별 구성을 남녀 간 균형되게 하여 성별의 차이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하위범주에서는 여가 및 오락, 정서 및 인성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특별한 취미가 없거나 여가를 불건전하게 보내는 남성이 출소 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많고, 정서적·감성적으로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여성의 위험성, 즉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남성비폭력범과 여성비폭력범의 LSI-R점수 비교

구 분	남성 비폭력범(n=216)		여성 비폭력범(n=12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SI-R점수(54)	8.92	5.032	9.56	4.951	-1.140
1.범죄기록(10)	1.79	1.693	1.91	1.824	-0.628
2.교육/직업(10)	1.21	1.578	1.54	1.549	-1.854
3.재정상태(2)	0.65	0.584	0.66	0.625	-0.154
4.가족관계(4)	0.31	0.683	0.49	0.881	-1.930
5.주거환경(3)	0.24	0.593	0.22	0.536	0.328
6.여가/오락(2)	1.07	0.741	0.85	0.678	2.759**
7.동료/친구(5)	0.96	1.029	0.97	1.048	-0.039
8.음주/약물(9)	0.54	1.128	0.43	1.056	0.852
9.정서/인성(5)	0.94	1.123	1.25	1.258	-2.316*
10.태도/지행(4)	1.30	1.366	1.23	1.442	0.436

*p<.05, **p<.01, ***p<.001

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남성표본과 여성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위험성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범죄기록, 교육 및 직업, 재정상태, 가족관계, 여가 및 오락, 음주 및 약물, 그리고 정서 및 인성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교육 및 직업, 가족관계, 정서 및 인성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위험성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남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가족관계 및 정서상의 문제점은 여성에게 더 심각한 범인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범죄유형효과 검증

이하에서는 동일 성별 내에서의 범죄유형에 따른 위험성 점수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유형이 각 집단의 위험성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1) 남성폭력범 대 남성비폭력범

〈표 8〉에서 남성폭력범과 남성비폭력범의 LSI-R 평균점수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서구에서 행해진 선행연구들(Hollin과 Palmer, 2003; Loza와 Simourd,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폭력범의 위험성점수(11.78)가 서구의 연구결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비폭력범(8.92)과의 차이도 크지 않다.⁹⁾ 이는 부분적으로는 각 연구 표본의 범죄구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일부 LSI-R 하위범주의 위험성 및 욕구 평가항목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8〉 남성폭력범과 남성비폭력범의 LSI-R점수 비교

구 분	남성 폭력범(n=216)		남성 비폭력범(n=21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SI-R점수(54)	11.78	5.727	8.92	5.032	4.405***
1.범죄기록(10)	2.58	2.002	1.79	1.693	3.573***
2.교육/직업(10)	1.44	1.500	1.21	1.578	1.206
3.재정상태(2)	0.77	0.628	0.65	0.584	1.702
4.가족관계(4)	0.47	0.760	0.31	0.683	1.858
5.주거환경(3)	0.38	0.706	0.24	0.593	1.623
6.여가/오락(2)	1.24	0.743	1.07	0.741	1.817
7.동료/친구(5)	1.25	1.049	0.96	1.029	2.215*
8.음주/약물(9)	1.25	1.544	0.54	1.128	4.000***
9.정서/인성(5)	1.29	1.203	0.94	1.123	2.495*
10.태도/지향(4)	1.15	1.083	1.30	1.366	-0.913

*p<.05, **p<.01, ***p<.001

또한, 하위범주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행해진 Loza와 Simourd(1994)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결혼관계, 여가 및 오락,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 범주에서 폭력범의

9) 예컨대, Hollin과 Palmer의 연구(2003)에서 폭력범의 LSI-R 평균점수는 28.91이고, 비폭력범은 19.23으로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게 나왔고, 영국에서 행해진 Hollin과 Palmer의 연구(2003)에서는 범죄기록, 교육 및 고용, 동료관계, 음주 및 약물 범주에서 폭력범이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범죄기록, 동료 및 친구,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 범주에서 폭력범의 점수가 비폭력범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 연구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행해진 것임을 감안할 때, 폭력범에게 공통된 범죄유발요인은 음주 및 약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교육 및 고용변인을 제외하면, 하위범주들의 효과는 Hollin과 Palmer의 연구(2003)에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문화적 차이를 떠나 폭력범들에게 공통된 위험성요인을 확인한 것은 LSI-R이 Anderws와 Bonta(2003)의 주장대로 문화를 초월한 위험성 평가도구임을 일부 긍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폭력범 대 여성비폭력범

〈표 9〉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표본에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의 LSI-R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비폭력범이 범죄기록과 재정상태에서 폭력범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비폭력범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재범율이 높고 재정상의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기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폭력범은 여성비폭력범 보다 여가 및 오락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폭력범에 비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여성폭력범과 여성비폭력범의 LSI-R점수 비교

구 분	여성 폭력범(n=71)		여성 비폭력범(n=12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SI-R점수(54)	10.11	4.827	9.56	4.951	0.754
1.범죄기록(10)	1.30	1.525	1.91	1.824	-2.397*
2.교육/직업(10)	1.75	1.721	1.54	1.549	0.873
3.재정상태(2)	0.39	0.573	0.66	0.625	-2.923**
4.가족관계(4)	0.68	0.891	0.49	0.881	1.428
5.주거환경(3)	0.38	0.763	0.22	0.536	1.566
6.여가/오락(2)	1.10	0.796	0.85	0.678	2.348*
7.동료/친구(5)	1.21	1.027	0.97	1.048	1.573
8.음주/약물(9)	0.65	1.332	0.43	1.056	1.250
9.정서/인성(5)	1.46	1.181	1.25	1.258	1.160
10.태도/지향(4)	1.03	1.121	1.23	1.442	-1.003

*p<.05, **p<.01,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성별, 문화, 인종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위험성-욕구 평가도구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LSI-R을 성별과 범죄유형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된 한국의 수용자 표본에 적용하고 각 집단별 위험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LSI-R이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분류심사도구임을 확인하였고, 각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인지를 확인하였다. 이 끝맺는 글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LSI-R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남성표본과 여성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성별 위험성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폭력범 간의 비교에서는 남성의 위험성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 범죄기록, 재정상태, 음주 및 약물 하위변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폭력범의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과 빈곤한 재정 및 음주는 강력한 재범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녀 비폭력범 간의 비교에서는 전체 LSI-R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하위범주에서 남성은 여가 및 오락에서 그리고 여성은 정서 및 인성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 간 위험성 차이의 미미함은 남성그룹이 범죄성이 약한 병역거부사범과 교통사범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범죄유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서, 먼저, 남성표본 내에서의 폭력범 대 비폭력범의 비교에서는 남성폭력범의 위험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 범죄기록, 동료관계,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 범주에서 폭력범 집단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폭력범은 높은 재범율과 실업율, 사회적 고립, 음주, 정서적 문제 등 LSI-R 하위 10개 범주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폭력범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폭력범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사회적 대응도 이러한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표본 내에서의 폭력범 대 비폭력범의 비교에서는 전체 LSI-R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비폭력범 그룹이 범죄기록 및 재정상태 범주에서 폭력범보다

유의미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폭력범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기범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폭력범의 경우는 비록 살인범이 대부분이지만 초범인 경우가 많아 범죄기록 요인에서 비폭력범보다 낮은 위험성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사기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LSI-R을 우리사회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LSI-R은 우리나라 수용자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ndrews와 Bonta(2001)가 제시한 위험군 분류기준은 우리나라 수용자들에게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LSI-R을 우리나라 수용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축적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분류점수(cut-off score)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음주와 약물에 대한 평가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LSI-R에서 음주 및 약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과거 및 현재에 가지고 있는 약물남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범죄자의 경우 약물남용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음주와 범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약물남용에 대한 평가문항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및 직업 변수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가 단순히 직업유무 또는 일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에 따른 직업군의 차이와 범행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LSI-R 구성상의 문제점 외에,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한 방법론상의 이슈로서, 추후 연구는 LSI-R 점수를 근거로 재범율과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과학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 상, 재범율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을 갖는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의 예와 같이 범죄유형을 폭력범 대 비폭력범으로 대분류하는 것은 범죄유형 또는 성별에 따른 위험성 차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비폭력범 집단에 병역사범이나 교통사범과 같이 범죄성이 약한 죄명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범죄유형(예, 살인범)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그 위험성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범죄유발요인과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 및 범죄유형별로 범죄유발요인과 재범위험성이 각기 다를음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후속연구들은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구설계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형민·류중하,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법무부, 범죄백서, 2008.
- 이법호·박성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Andrews, D. A. & Bonta, J. (2001).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User's Manual. Toronto, Canada: Mental Health System.
- _____ (200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Andrews, D. A., Bonta, J., & Wormith, J. S. (2006). The Recent Past and Near Future of Risk and/or Need Assessment. *Crime & Delinquency* 52:7-27.
- Andrews, D. A. et al. (1990). Does Correctional Treatment Work? A Clinically Relevant and Psychologically Informed Meta-analysis. *Criminology* 28:369-404.
- Austin, J. & Hardyman, P. L. (2004). Objective Prison Classification: A Guide for Correctional Agencies.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Washington, DC.
- Austin, J. & McGinnis, K. (2004). Classification of High-risk and Special Management Prisoners: A National Assessment of Current Practices. U. 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Washington, DC.
- Belknap, J., & Holsinger, K. (2006). The Gendered Nature of Risk Factors for Delinquency. *Feminist Criminology* 1:48-71.
- Blanchette, K. & Taylor, K. (2005). Development and Field-test of a Gender-informed Security Reclassification Scale for Woman Offender. Research Branch, Correctional Service Canada.
- Bloom, B., Owen, B., & Covington, S. (2003). Gender-responsive Strategies: Research, Practic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Women Offenders.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U.S. Department of Justice. Retrieved on 1. 10. 2009 from

<http://www.nicic.org/Library/018017>

- Bonta, J. (1996). Risk-needs Assessment and Treatment. In A. T. Harland(ed.), Choosing Correctional Options That Work: Defining the Demand and Evaluating the Suppl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Champion, D. J. (1994). Measuring Offender Risk: A Criminal Justice Sourcebook,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hesney-Lind, M. (2006). Patriarchy, Crime, and Justice Feminist Criminology in an Era of Backlash, *Feminist Criminology* 1: 616-626.
- Coulson, G. et al. (1996). Predictive Utility of the LSI for Incarcerated Female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427-439.
- Daly, K. (1992). Women's Pathways to Felony Court: Feminist Theories of Lawbreaking and Problems of Representation, *Review of Law and Women's Studies* 2:11-52.
- Douglas, K. & Kropp, R. P. (2002). Prevention-based Paradigm for Violence Risk Assessment: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617-658.
- Gendreau, P., Goggin, C. & Smith, P. (2002). Is the PCL-R Really the "Unparalleled" Measure of Offender Risk? A Lesson in Knowledge Cumul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397-426.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575-607.
- Girard, L. & Wormith, J. (2004).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Ontario Revision on Gener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Various Offender Group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150-181.
- Hannah-Moffat, K. (2006). Pandora's Box: Risk/Need and Gender-responsive Corrections, *Criminology & Public Policy* 5:183-192.
- Hannah-Moffat, K. & Shaw, M. (2001). Taking Risks: Incorporating Gender and Culture into the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Federally Sentenced Women in Canada, Ottawa, Canada: Status of Women in Canada.

- Hemphill, J. F. & Hare, R. D. (2004). Some Misconceptions about the PCL-R and Risk Assessment: A reply to Gendreau, Goggin, and Smit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203-243.
- Hollin, C. & Palmer, E. (2003).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Profiles of Violent and Nonviolent Priso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1075-1086.
- Kroner, D. G., & Mills, J. F. (2001). The Accuracy of Five Risk Appraisal Instruments in Predicting Institutional Misconduct and New Convic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471-489.
- Lee, S. J. & Edens, J. F. (2005). Exploring Predictors of Institutional Misbehavior among Male Korean Inm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412-432.
- Lowenkamp, C. T., Holsinger, A., & Latessa, E. (2001). Risk/need Assessment,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he Role of Childhood Abus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546-563.
- Lowenkamp, C. T., Lovins, B. & Latessa, E. J. (2007). Validating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and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 Screening Version with a Sample of Probationers (unpublished article).
- Loza, W. & Simourd, D. J. (1994).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Level of Supervision Inventory among Male Canadian Federal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468-480.
- O'keefe, M. L., Klebe, K., & Hromas, S. (1998). Validation of the Level of Supervision Inventory for Community Based Offenders in Colorado: Phase II. Colorado Department of Corrections.
- Raynor, P. et al. (2000). Risk and Need Assessment in Probation Services: An Evaluation.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cs Directorate Home Offense. Retrieved on 1. 10 from <http://www.nicic.org/Library/016909>
- Reisig, M. D., Holtfreter, K., & Morash, M. (2006). Assessing Recidivism Risk across Female Pathways to Crime. *Justice Quarterly* 23:384-405.
- Schlager, M. D. & Simourd, D. J. (2007). Validity of the Level of Service

- Inventory-Revised among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Male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545-554.
- Simourd, D. J. (2006). Validation of Risk/need Assessments in 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PADOCC Risk/needs Validation Final Report, Retrieved on 1. 10. from <http://www.nicic.org/Library/022293>
- Simourd, D. J. & Malcolm, P. B.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among Federally Incarcerated Sex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261-274.
- Taxman, F. S., & Thanner, M. (2006). Risk, Need and Responsivity: It All Depends. Crime & Delinquency 52:28-51.
- Zinger, I. (2004). Actuarial Risk Assessment and Human Rights: A Commentary,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607-620.

Assessment of Recidivism Risk Factors by using the LSI-R

Lee, Min-Sik^{*} / Kim, Hye-Sun^{**}

This study tries to assess the validity of LSI-R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among 503 prisoners sampled from three correctional facilities in S. Korea, 2008. The study tests and compares the LSI-R risk scores and the significance of 10 subscales for four subgroups of the subjects (male-violent, male-nonviolent, female-violent, and female-nonviolent) divided by their gender and crime type. Although the significance test result of total risk score difference between the whole male and female groups was not significant, the test results between male-violent and female-violent groups and between male-violent and male-nonviolent groups were significant. This study also points out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further studies testing the LSI-R among Korean criminals and suggests some strategies or solutions to cope with the problems.

❖ Keywords : LSI-R,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Risk and Need Assessment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Associate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Ph.D. in Sociology

^{**} Lecturer, Kyonggi University